



(주)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

사업자명

(주)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도약로 261
대우테크노파크 B-1105

업종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인력구성

전체인원 231명
정규직(191명)
기간제(36명)
파견(4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했죠. 우리 국민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와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라는 조사에 10명 중 9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죠.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국민이 차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차별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차별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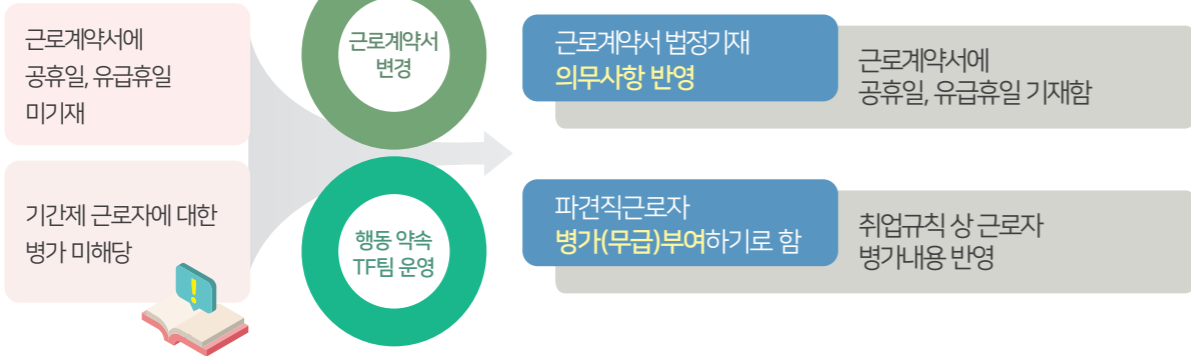
오늘도 진단이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부천에 소재한 (주)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를 찾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큼, 타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

진단 내용

개선 노력

주요 개선점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를 소개합니다.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는 국내외 순수·초순수급 산업용수 공급, 하·폐수처리, 하수 재이용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대기오염방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걸친 환경산업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순환과 지구환경의 보전을 돕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환경산업의 리더로 육상 및 해상 수처리 전 영역의 밸류 체인을 완성했으며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대기오염방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발 앞서 고객에게 최적화 솔루션 제공,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쌓은 풍부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사업개발·설계·시공·운영관리·투자·컨설팅을 아우르는 최적화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산업용수 부문 국내 최대 규모 시공 실적 달성, 글로벌 디스플레이 분야 수처리 세계 최대 시공 실적을 보유하는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고객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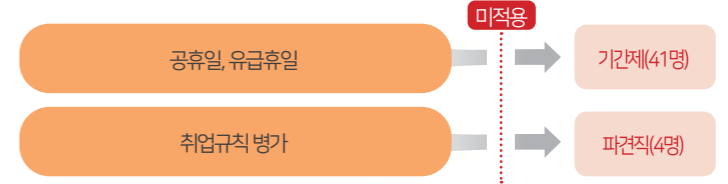
진단이가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2022년 7월 1일, 진단이의 진단결과 <차별개선 필요 사업장>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1명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파견직 근로자 4명은 병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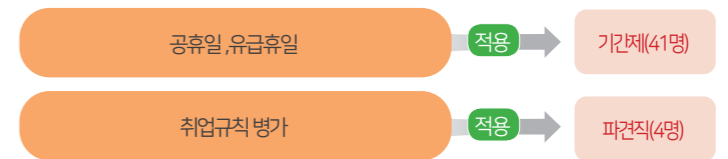


어떻게 개선했나요?

개선 전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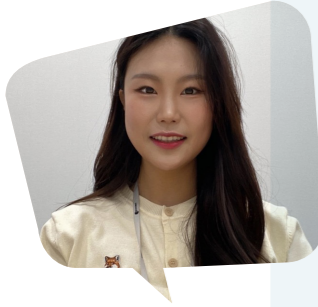
이기종 |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과장 |



저희 회사는 건설업의 특성상 수주상황에 따라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차이가 없어 처음 차별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겠다고 여겼는데, 막상 진단을 통해 '차별이 있다.'라고 진단되었을 때, 현장 중심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파견직 근로자의 병가(무급)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22. 11. 8)을 시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2022. 12. 31)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과거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당사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진단이의 개선사항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Process 운영, 노사협의회, 고충상담실, 노사발전재단 주관 차별예방 교육 수강, 신규 입사자 L(a)unch Start, 임직원 행동약속 TF 등의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해영 | (주)테크로스워터에너지 해외영업직 사원 |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에 능률도 오르고 업무 욕심도 더 생겼어요. 처음 입사해서는 먼저 일을 빨리 배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는 1년 후의 미래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생활도 안정되었고, 여기서 꿈을 꾸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회사는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임금과 복리후생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일한다는 보람과 동시에 애사심도 더 생겼어요.

예방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정한 고용, 행복한 일터 구축 프로젝트!

(주)테크로스워터에너지는 수주현황에 따른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사별 규모, 직무 등에 따라 인원변동 폭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시공 프로젝트 단위별 비정규직 고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단발성 공사 혹은 공사 기간이 짧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의 추가 공사 및 연속성을 가진 프로젝트에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해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고, 프로젝트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테크로스워터에너지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좋은 정책, 가이드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